

2026년 1학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연구방법과 실습 자료집

담당 교수: 전의령

목차

1조: 불교동아리에서 나타난 종교의 재구성과 세속적 실천 변화 분석.....	1
2조: 디지털 분절과 자아 연출: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기능을 통한 이중적 자아 연출에 관한 연구.....	11
3조: 유학생 증가 정책의 영향과 인식 연구 : 전북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21
4조: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양상과 교육적 의의.....	29
5조: 숏폼 및 알고리즘이 초단기 유행에 미치는 영향: 전주 지역 카페 소비 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37

1. 서론

해마다 최대 방문객을 경신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종교적 엄숙함이나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 교리를 표현한 키링, 의류, 때밀이 등의 생활 소품을 내놓아 방문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나는 절로’의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와 불경을 접목한 EDM 공연 등 불교는 사찰의 경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가 전통적으로 지녀온 엄숙하고 교리 중심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가벼운 방식으로 소비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종교가 신앙의 대상보다 체험과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로 재구성되며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교의 세련된 변신을 의미하는 ‘힙불교’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젊은 세대는 불교를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내 불교 동아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약 140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비신도라는 점은 해당 공동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보다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심리적 안정 등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불교를 접하고 있고 친목 도모나 자기계발과 같은 세속적 목적과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전통적인 종교 활동과 대학 동아리 내에서 실천되는 종교 활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대학 불교동아리가 종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비신도의 참여 확대가 동아리의 활동 방식과 종교적 의미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소비되고 실천되는 새로운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청년 세대의 종교성 변화와 제도종교 이탈

탈종교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제도종교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규현(2023)은 한국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 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이상훈(2022)은 청년 세대의 종교 관심의 감소 원인을 종교적 주제보다 학점, 취업 등 사회에 직면적인 문제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동시에 청년들에 대한 포교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해석한다. 본 연구 역시 청년 세대의 종교 관심의 감소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게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불교 박람회의 방문객 수가 점점 증가하고 불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본 연구는 청년 세대들이 종교라는 자체에 관심이 없어진 것보다는 ‘제도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2) 현대 불교의 세속화와 문화적 재구성

송현주(2023)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세속화로 인해 종교의 제도적 권위가 약화되고 사람들은 종교를 의무보다 개인의 선택과 경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 역시 교리와 의례보다 명상, 마음챙김, 힐링 같은 실천 중심 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 종교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고 혼합되는 소비문화적 특징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엄격한 신앙보다 자율적이고 느슨한 참여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포스트모던 불교’로 설명한다. 현대 불교는 단순한 개인 수행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불교 역시 청년층의 제도종교 이탈을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 참여 방식의 등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대학교 불교동아리는 명상, 친목, 상담, 봉사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 공동체 사례로 볼 수 있다.

강혜영(2024)은 불교문화콘텐츠를 MZ세대에게 종교적 의미보다 스스로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정서적 위로이자 문화적 재미, 유용한 도구로 해석했다. 불교문화콘텐츠가 향후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 및 기술 접목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더욱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사찰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음을 밝히며 이들의 감성에 맞춘 현대적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했으나 여전히 기존 프로그램들은 전통적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종교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한 현대적 공동체 모델에 주목한다. 따라서 세대의 성향을 반영한 실천적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돕고 종교의 현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대학 불교동아리의 재생산과 조직문화

이시윤(2019)은 서울 시내 3개 대학 불교학생회의 현황과 구성원 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학 불교동아리의 조직문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불교학생회는 정기 법회의 종교성이 약화되고 친목 중심 모임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성원들은 종교 간 경쟁과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포교나 실천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간극의 원인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불교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러티브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한편으로는 동아리의 소극적 운영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타 종교의 적극적 포교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특징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조직 운영과 종교성 약화 현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비신도 구성원들이 종교성과 세속성의 경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대학 불교동아리에서 전통적인 불교 실천(사찰음식, 법회, 예불 등)은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고 재해석 되는가? 또, 그러한 변형은 어떠한 동기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이에 대해 ‘사찰 음식 클래스’와 ‘연등제’라는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오신채나 육류 제한 같은 전통적 계율과 연등제라는 전통적인 불교 행사가 현대적, 세속적 가치와 접목되어 변형되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질문은 ‘동아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세속적 활동에 종교적 의미나 형식이 부여되는 경우, 그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참여자들은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불교동아리 회원 간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친해지길 바라’라는 소모임 활동을 분석하여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선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종교적 의미의 실천 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재해석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은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들에게 종교성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동아리 임원진 및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종교적 경계의 희미함을 검토한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절대적인 신앙으로서의 종교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라이프 스타일의 자원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종교적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지 소개

1969년에 창립된 전북대학교 소속 중앙 동아리인 불교동아리는 대학생 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북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본 동아리는 대학 내 전법과 포교를 도모하는 동시에, 불교의 가르침과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며 청년 불자 및 학생들을 위한 활동 도량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담당 승려는 전주 천고사의 주지인 우경 스님이며, 지도 교수는 김경아 교수다. 불교동아리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템플스테이, 정기 법회, 법향, 친목 활동, 사찰음식 클래스, 연등제 등이 존재한다.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획 및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식
템플스테이	사찰에 머무르며 차담, 명상, 휴식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 도모하는 프로그램. 휴식형과 참여형 중 선택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정기 법회	매달 1회 전북 불교회관에서 개최되는 법회. 교리 학습과 동시에 부원 간 한 학기의 활동 돌아보고 교류하는 행사.
법향	1~2달에 한 번 소규모 단위로 모여 일상의 고민과 내면의 생각 공유하는 소통 모임.
친목 활동 (친해지길 바라)	부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점진적인 상호 교류 유도를 위해 기획된 소모임 활동.
사찰 음식 클래스	제철 재료 활용한 사찰음식 직접 조리해보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매개로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경험 제공.
연등제	석가탄신일 기념해 지역 사찰 행사의 운영 및 봉사활동 지원하는 프로그램. 나눔과 상생의 가치 실천하는 기회 가짐.

(3) 방법론 설명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의 민족지적 연구방법에 기반하여, 전북대학교 불교동아리를 사례로 한

질적연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리 부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정기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삼았으며, 동아리 임원진과 담당 스님, 불교 행사 관계자와의 비형식 대화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년 세대의 종교성 변화, 현대 불교의 세속화와 문화적 재구성, 대학 종교 동아리의 조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함께 검토하여 현장 자료와의 비교와 분석을 통한 삼각측정을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을 불교동아리 부원들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불교적 실천을 경험하고 재해석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교동아리가 신앙 공동체를 넘어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기에, 구성원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비신도 회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이 종교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대 대학생들의 종교성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동아리 임원진과 담당 스님, 불교 행사 관계자를 보조면담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동아리의 종교적 정체성과 비신도 회원의 참여 사이에서 어떠한 고민과 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뿐 아니라 활동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현장연구는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관찰은 불교동아리의 정기 프로그램인 법회, 법향, 사찰음식 클래스, 템플스테이, 친목 소모임 ‘친해지길 바라’ 등 총 5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사찰음식 클래스와 연등제는 본 연구의 핵심 사례인 세속화와 종교화 분석과 직결되는 현장으로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활동 중에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과 공간 활용 방식, 의례적 요소의 배치 등을 현장노트에 기록하였고, 활동 직후 참여자들과 나눈 비형식 대화 역시 현장노트의 일부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심층면담은 부원 2명, 임원진 2명, 담당 스님 1명, 연등제 참여객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당 약 3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부원 면담의 공통 질문은 ① 종교 유무 및 기존 종교 경험, ② 불교동아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 ③ 기대했던 활동과 실제 경험의 차이, ④ 주로 참여하는 활동과 그 이유, ⑤ 가입 전후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참여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의미화하는지, 혹은 문화적·관계적 경험으로 의미화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피기 위한 것이다. 임원진과 담당 스님, 행사 관계자 면담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 비신도 회원을 고려한 운영상의 조정,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입장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녹음·기록되었으며 인터뷰 끝나고 난 뒤 분석하였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세속화’와 ‘종교화’의 틀과 대조하며 재구성하였다. 연구 윤리를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사전에 고지하였고, 본문에 등장하는 인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이름(가명)	구분	특이사항 및 인터뷰 목적
권00	일반부원	비신도
서00	일반부원	천주교 신자
이00	연등제 참여객	참여 동기 및 활동 경험
박00	연등제 참여객	참여 동기 및 활동 경험
김00	임원진	불교동아리 2년
조00	임원진	다양한 활동 참여 경험

스님	불교동아리 담당 스님	종교인의 시각으로 보는 불교동아리
----	-------------	-----------------------

4. 연구 내용의 분석

(1) 동아리에서의 전통적 불교의 실천 변형과 변형되는 동기와 맥락

불교동아리에서는 종교 동아리답게 불교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적 불교라는 틀에 갇혀있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불교동아리의 프로그램에 녹아들어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동아리 내에서의 ‘사찰 음식 클래스’와 ‘연등제’라는 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불교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어떠한 동기와 맥락 속에서 변형되어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1) 전통적인 불교의 실천과 변형

불교동아리는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찰 음식 클래스’와 ‘연등제’가 있다. ‘사찰 음식 클래스’는 4차례에 걸쳐 운영되었다. 이는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희망하는 날짜를 골라 해당하는 날짜에 사찰음식 클래스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활동 내용은 사찰음식 클래스라는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실천되고 있다. 본래 사찰음식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식품과 술을 금지하며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와 같은 다섯 가지 매운 채소인 오신채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찰 음식 클래스에서는 파, 마늘 등 오신채를 쓸 뿐만 아니라 달걀, 닭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찰 음식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아닌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분께서 해당 클래스를 진행하고 계셨다. 다음으로 ‘연등제’는 5월 16일에 치러진 행사로, 전주시에서는 전라감영에서 해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연등제 또한 불교동아리에서 희망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신청하여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불교동아리 소속 회원들은 연등제에서 부스 운영 및 행사 보조, 불교 노래에 맞춰 간단한 율동, 전라감영에서 한옥마을까지 연등 행렬을 참여한다. 전체적인 활동만 보면 전통적이지만 그 세부적인 활동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변형된다.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행사 당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스 운영 및 행사 보조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수수 팔 경단 만들기과 소원등 쓰기 등 불교와 관련된 부스이고 풍선 나눠주는 부스와 페이스페인팅 등과 같은 부스는 주로 어린아이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스이다. 또한, 연등 꽃과 간식 등을 나눠주는 것에서도 주로 어린아이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나눠주었다. 위와 같이 ‘사찰 음식 클래스’와 ‘연등제’라는 활동을 통해 불교동아리에서의 불교 행사가 전통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변형되고 재해석되어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



‘연등제’에서 풍선 나눠주는 모습



‘사찰 음식 클래스’에서 육류가 포함된 모습

2) 불교 활동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동기와 맥락

일반부원인 권00은 불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일반부원 서00은 원래는 불교에 대해 근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입한 이후로 동아리 분위기를 통해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만약 사찰음식 클래스 등이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면 해당 활동에 참여했을 것인가를 물어보니 색채가 강하게 띄어져 있었다면 부담스러워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들 불교가 전통적인 불교답지 않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사찰 음식 클래스 후원자에 따르면, 사찰 음식에 대한 규율은 불교 신도들도 엄격히 지키지 않기에 일반 사람에게까지 확대해 강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사찰 음식 클래스를 통해 불교에 대한 호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덧붙였다. 연등제 주최 측에서도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로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연등 꽃과 간식 등을 나눠주기를 강조하며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불교 활동의 변형은 불교라는 종교를 한층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여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동아리 내 일상적·세속적 활동의 종교적 의미와 참여자들의 경험

불교동아리는 전통적인 불교 실천 활동을 넘어 일상적·세속적 활동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동아리 회원들에게 불교적 경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동아리 내 ‘친해지길 바라’ 소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적·세속적 활동에 종교적 의미가 더해질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참여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 분석하였다.

1) 동아리 내 일상적·세속적 활동

불교동아리는 종교적 행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세속적 활동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친해지길 바라(이하 친바라)’ 소모임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나이, 단과대, 취미 등을 조사한 다음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조를 편성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리 임원진은 친바라를 기획한 이유에 대

해 “타 동아리에서도 하는 활동인데 불교동아리라고 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불교동아리 역시 일반 대학 동아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친목과 네트워크 형성 기능 역시 중요한 운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아리는 미션 수행 방식의 점수제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팀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친목 활동을 넘어 재미와 경쟁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친바라의 점수표 항목을 보면 종교적 항목과 일상적 항목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적 항목으로는 템플스테이 참여 10점, 정기 법회 참석 8점, 법향 참여 8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상적 항목으로는 밥약 및 술약 5점, 단체 오락 활동 5점, 인생네컷 촬영 3점, SNS 팔로우 2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 수행만을 강조하지 않고 친목 활동과 놀이 문화를 종교 활동 안에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바라 참여자들이 일상적·세속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불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과정 속 불교동아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 수행만을 강조하지 않고 친목 활동과 놀이 문화를 종교 활동 안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참여자들의 활동 참여 동기와 종교적 경험의 양상

참여자들 역시 종교적 목적보다 인맥 및 관계 형성을 맺기 위해 친바라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부원인 서00은 친바라에 참여한 이유를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라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친바라 미션 항목에 불교적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바라를 통한 종교 행사에 크게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친바라에서까지 종교적 활동을 하기 애매하다는 반응이었다. 즉, 친바라 참여자들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세속적 관계 형성과 친목 기능에 더 집중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이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 대부분 친바라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속감과 즐거움을 경험했지만, 반대로 일회성 만남에 깊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후회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도 다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친바라가 깊은 인간관계 형성 여부와 별개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 분위기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3) 대학 불교동아리에서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

1) 감각과 분위기를 통해 인식되는 종교성

대학 불교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는 교리나 공식적 소속 여부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에게 종교성은 특정한 감각과 분위기 속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에 가까웠으며 불교 또한 엄격한 신앙 체계라기보다 마음의 안정, 인간관계, 문화 체험, 자기 성찰을 위한 실천적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이 종교적이라고 느낀 순간은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된 감각적 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종교성을 느낀 순간을 물었을 때, 임원진 조00은 “불교 노래를 배울 때 정도만 느꼈고

다른 활동에서는 거의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부원인 서00은 향 냄새나 목탁, 법회의 분위기 등을 종교성을 인식하는 주요 요소로 언급하였다. 즉 이들에게 종교성은 특정 감각과 분위기를 통해 인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친바라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보드게임을 할 때는 종교성을 거의 인식하지 않았지만 활동명에 불교 관련 단어가 포함될 때 비로소 불교동아리라는 점을 자각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종교성은 활동 전체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감각적 계기를 통해 순간적으로 인지되는 경험에 가까웠다.

2) 비강요와 느슨한 종교성의 형성

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종교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강제성의 부재를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템플스테이에서는 발우공양, 새벽예불, 108배 등이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운영되었고, 사찰음식 클래스에서도 전통적인 오신채 금기나 육류 금지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전통적 종교의 핵심은 엄격한 규범과 실천에 있었으며, 그러한 규범성이 완화될수록 활동은 덜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강요성은 단순히 종교성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불교를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종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종교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활동조차도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식이 다른 종교에 대한 이미지와의 비교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종교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한 반면, 불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부담이 적은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교동아리의 특징은 종교성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결국, 참여자들에게 ‘종교적이지 않음’이란 종교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믿음이나 실천을 강요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 제도종교가 가진 강한 규범성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각자의 참여 방식을 인정하는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도 연결된다. 즉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친목 활동 자체가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느슨한 관계 방식이었다.

동시에 이 지점에서는 하나의 역설도 드러난다. 참여자들은 불교를 “강요하지 않는 종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바로 그 비강요성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일반부원 권00은 “불교에 소속될 만큼 활동할 것 같지는 않다”며 자신을 그저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였고 일반부원 서00은 친목 모임에서 불교 관련 활동이 지나치게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참여자들은 불교 활동에 우호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종교적 소속 자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적이지 않음’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종교 경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종교의 재구성

종합하면 대학 불교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종교성은 전통적인 교리나 강한 신앙의 형태로 존재하기보다 감각적 분위기와 문화적 경험, 그리고 느슨한 관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양

상에 가까웠다. 참여자들은 불교를 차분함과 비강요성,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강한 종교적 소속 안에 위치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동아리 역시 종교적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기보다 비신도 참여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종교성과 일상성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에게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는 고정된 기준이라기보다 감각, 관계, 문화, 운영 방식 속에서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험적 경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불교동아리를 대상으로 민족지적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학 종교 동아리의 재해석 방식과 일상적 활동 중 참여자들의 종교 경험, 대학 동아리의 종교성 형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사찰음식 클래스와 연등제 사례를 통해 불교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은 청년 세대들의 생활 방식과 취향에 맞추어 재해석됨과 동시에 친숙하고 부담 없는 불교의 이미지를 선택해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교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일상적·세속적 활동은 회원들에게 신앙 의례를 격려하지만, 불교 특유의 ‘비강요성’을 느끼며 종교 활동보다 세속적 관계 형성과 친목에 집중해 공동체 분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회원들은 목탁 소리, 향 냄새 등 특정 감각과 분위기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날 때 종교성을 경험할 뿐, 불교 활동을 우호적으로 즐기면서도 종교적 소속 자체에는 거리를 두는 ‘느슨한 종교성’의 양상임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불교와 불교동아리의 쇠퇴를 설명한 기존 연구와 달리, 불교동아리 내 비신도 회원들의 참여에 주목하여 종교 실천의 변형과 재해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불교동아리라는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종교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니라 문화와 공동체, 정서적 지원의 자원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방향으로 이해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브라보마이스타일. 「[윤나래의 세대읽기] 먹고 입고 ‘체험’하는 불교 열풍」, 2026-05-11,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189

이상훈. (2022). 청년·대학생의 종교성(宗教性)과 청년 불교 중흥의 새로운 접근.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8(1), 1-21. 10.34281/KABP.28.1.1

정규현. (2023). 청년 세대의 다중 압력의 개인화와 종교성에 관한 고찰. 사회이론., 1-48. 10.37245/kjst.2023.05.63.1

송현주. (2023). 현대의 종교문화와 불교의 미래 - ‘세속화’와 ‘마음챙김’ 담론을 중심으로

강혜영. (2024). MZ세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콜라이찌(Colaizzi)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이시윤. 2019. "'불교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대학 내 경쟁적 종교 환경 내에서 불교학생회의 현황과 재생산 내러티브." 『불교와 사회』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http://www.kbuf.org/bbs/content.php?co_id=1020

디지털 분절과 자아 연출:
인스타그램 “친한친구” 기능을 통한 이중적 자아 연출에 관한 연구

2조 : 김희상, 박정우, 박한결, 서현우

1. 서론

현 시대의 인스타그램은 개인이 자신의 일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전체 게시물’과 ‘친한 친구’와 같은 기능적 분화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도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공존하는 양면적 특성을 만들어 내며, 사용자로 하여금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기 이미지를 조절하도록 유도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세련된 일상 등을 시각적으로 게시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동시에 특정 인물들로만 구성된 공유 공간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소통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특정 인물을 ‘친한 친구’ 리스트에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와 같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종의 상징 자본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의 기능적 설정에 따라 이용자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구성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공개적인 공간과 친한 친구 공유 공간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 및 상호작용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자기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능의 구조적 차이가 이용자의 게시물 표현 방식과 그 효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플랫폼의 구조적 분화와 프라이버시 관리 전략에 따른 자아 연출의 분절화

최근원, 나은영(2025)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기능 분화에 따라 게시물 목적과 대상을 자아추구적 포스팅과 상호작용적 포스팅으로 분리함을 밝혔다. 전체 공개 피드는 지위와 취향을 편집해 드러내는 공적 영역이자 상호작용적 장인 반면, ‘친한 친구’ 설정은 내밀한 심리적 고민을 나누는 선택적 소통 공간이다. 이용자는 이 구조적 분화로 관계 거리에 따라 연출 수위를 조절하며 집단 유대와 정서적 해방감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신일순(2020)은 프라이버시 역설이 플랫폼 구조에 따라 차등화됨을 규명했다. 이용자들은 개방된 공간보다 ‘친한 친구’ 등 폐쇄적 설정에서 정보 유출 위협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이 안전감은 사적 정보를 능동적으로 개방하게 만들며, 프라이버시 우려보다 관계 유지라는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지각하게 한다. 나아가 김하원, 이성식(2025)은 부계정 운영 행위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시선을 의식하는 본계정에서는 편집된 이상적 자아를 전시하지만, 소수 지인 중심의 부계정에서는 솔직한 감정과 취미를 드러내는 멀티 페르소나적 양상을 보임을 확인했다. 즉, 플랫폼의 기능적 분리는 자기표현을 구조적으로 분절시킨다.

(2)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인상관리 동기와 과시적 자기표현의 상관성

SNS 자기표현 양상은 플랫폼 구조와 개인의 내면적 심리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혜진 외(2017)는 명시적·암묵적 자존감의 불일치 수준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타인의 승인을 통해 내면의 불안을 보상받으려는 기제가 강함을 밝혔다. 이들은 피드 공간에 특정 브랜드 로고를 선명히 노출하거나 해시태그로 과시적 소비를 직접 언급하며 편집된 이상적 자아를 수행하는데, 이는 공적 공간이 심리적 결핍의 보완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격 및 역량과도 직결된다. 사카타 리리, 김동윤(2024)은 MZ세대 중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SNS 내 자기개방에 적극적이며, 이들의 높은 자기표현력이 메시지 수신 시의 비판적 사고력과도 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상관리 우려는 영구적인 피드에서 과시적 연출을 자극하지만,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나 친한 친구 기능처럼 일시적이고 좁은 영역에서는 진솔한 자기개방 동기로 전환된다. 김윤아 외(2022)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용자의 인상관리 우려가 높을수록 오히려 자기개방 의도가 높아지는 ‘전략적 인상관리’ 현상을 확인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게시물 휘발성과 수신자 제한을 안전장치로 활용해 사적인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노출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들은 영구히 보존되는 게시물에서는 철저히 계산된 과시를 지속하고, 24시간 수 삭제되는 스토리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진솔한 자아를 표출하는 이중적 소통 전략을 취한다.

(3) 고프먼의 자아 연출과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을 통해 본 SNS상의 자기표현 실천

고프먼의 연극이론은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연출하고 인상을 관리하는지 설명하는 토대다. 장현미(2014)는 온라인 자아를 자아 추구, 상호작용 의례, 자기관리의 총 3개 자아로 유형화하여 자아 연출이 사회적 관계 속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한편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논의는 취향과 문화자본이 사회적 차이를 형성하는 방식을 해명한다. 김종현(2014)은 SNS 공간에서의 자기 과시 성향이 정보 공유 행위와 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과시적 자기표현이 사회적 위치와 취향을 드러내는 구별짓기 실천임을 보여주었다. 실증 분석 결과, 개방형 SNS에서는 자기 과시 성향이 정보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 반면, 지인 중심의 폐쇄형 SNS에서는 반드시 유익한 정보나 몰랐던 사실을 공유하는 행동을 거쳐야만 신뢰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매체 환경에 따라 구별짓기의 양상이 차별화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고프먼의 이론은 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아를 연출하는 상호작용적 차원을 설명하고, 부르디외의 이론은 그러한 자기표현이 사회적 취향 및 계층 구조와 연결되는 구조적 차원을 설명한다. 즉, 고프먼이 자아 표현의 수행성과 인상 관리 메커니즘을 드러낸다면, 부르디외는 그 수행이 사회적 구별 논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해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SNS 자아 표현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구별짓기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실천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중심질문은 ‘인스타그램의 앞무대와 뒷무대 기능이 인스타 사용자의 자아 연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에 대해 면담자의 인스타그램 내의 본 계정 / 부계정과 친한 친구 / 전체 공개 게시물을 관찰 후 특징을 확인하고 면담자의 자아 연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두 번째 중심질문은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설정과 포스팅 종류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해 면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공개/비공개 계정과 게시물/스토리로 포스팅의 종류를 분류해 소통 대상, 정보 노출과 콘텐츠 성격의 차이에 대해 분석했다. 세 번째 중심질문은 ‘인스타그램의 뒷무대는 검열 없는 자아표출을 가능하게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면담자들에게 앞·뒷무대 경계의 붕괴와 폐쇄적 소통이 유발되는 친한 친구 게시물에 대한 경험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고 분석했다.

(2) 연구지 소개

인스타그램 : 현재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소셜 미디어를 넘어, 대한민국 20대의 일상, 소비, 소통을 지배하는 ‘올인원(All-in-one)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20대 이하에서 압도적인 사용 시간(월 1억 시간 이상)과 사용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대 이하의 인스타 사용자들은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필터링 되는 관계와 꾸밈없는 날 것의 일상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특히 진짜 내 사람들을 위한 ‘대나무숲’ 같은 ‘친한 친구’ 스토리는 기존의 일상 속 은근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앞무대’에서 벗어나 본인을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뒷무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런 ‘앞무대’와 ‘뒷무대’를 인스타그램에서 나누려는 부분은 인스타그램 내의 본 계정·부계정 분화와 게시물(피드)와 스토리,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 등등 개인의 필요나 관심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각각 차이를 가지게 되는 공간이다.

(3) 방법론 설명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오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20대(19 ~ 29세) 사용자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과 면담자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피드)나 스토리, 친한 친구 스토리를 통한 자료 조사 등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20대 사용자들이 특히 인스타그램 내의 앞무대와 뒷무대를 분명하게 나누어 사용해서 20대 사용자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했다. 면담은 조원 1명 당 면담자 2명을 설정하여 각 면담자와 시간 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1:1 공식 면담을 30분 정도 진행하였으며, 1:1 개별 면담을 고집한 이유는 면담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조원이 1:1로 개별 면담을 해야 면담 대상자의 솔직한 경험과 심정,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까지도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면담은 심층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나이	성별	직업	충위
A	23	남자	대학생(직장병행)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1개만 사용 비공개 계정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X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X
B	26	남자	직장인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2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본·부계) 공개, 비공개 계정 모두 사용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O(반려동물·사생활 계정 구분)
C	24	여성	대학생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2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본·부계) 두 계정 모두 비공개 계정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X
D	21	남성	대학생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1개만 사용 비공개 계정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게시물을 전혀 사용 X)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X(사적 대화 공유에 부정적)
E	23	남자	대학생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1개만 사용 비공개 계정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과시 or 은폐)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X(계정 내에서 게시물 차이 O)
F	19	여자	고등학생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2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본·부계) 두 계정 모두 비공개 계정(개인사로 인해 비공개 전환)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모범적 이미지 vs 일탈)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O
G	24	남자	대학생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O 계정 1개만 사용 비공개 계정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 (특별한 모임 vs 일상)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X
H	24	남자	대학생	일반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 구분 X 계정 2개 사용(취미·일상 게시 계정 vs 지인 소통) 공개, 비공개 계정 모두 사용 게시물, 스토리 용도 차이 O(여행지 사진 vs 일상) 계정 자체의 용도 차이 X

[표 1] 면담자의 기본정보(나이, 성별, 직업, 충위)를 게시한 표

인스타그램 내의 자아 연출 방식이나 포스팅 방식의 차이 등을 잘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로 면담자를 설정하더라도 관심 분야, 직업, 친한 친구 게시물 사용 여부, 다계정 사용 등 조원별로 면담자 간에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면담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스토리의 용도와 계정 자체의 용도, 여러 계정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는 차이 등 인스타 그램 내에서 나타나는 층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고 심층 면담과 함께 면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내에서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뿐만 아니라 인스타에서 면담자가 실제로 올리는 게시물(피드), 스토리나 친한 친구 스토리, 그리고 전체 공개 스토리를 확인하면서 면담자가 올리는 게시물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분석했다.

4. 연구 내용의 분석

(1) 인스타그램 기능(본-부계, 친한 친구)에 따른 앞·뒷무대 자아 연출의 양면성

면담을 진행한 8인의 면담자 중 전부 인스타그램 내에서 앞무대와 뒷무대를 나누어 자아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계정, 부계정을 나누어 인스타 계정을 관리하거나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계정 내에서 전체 공개 게시물과 친한 친구 게시물로 나누어 앞무대와 뒷무대를 분리해 이분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본 계정과 전체 공개 게시물에서는 개인의 여유로운 일상이나 더 정리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린다면 친한 친구 게시물에서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나 피곤한 일상, 욕설 섞인 푸념성 게시물, 순간적인 감정을 공유하며 본인의 꾸미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나 편한 모습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면담자 E의 경우 일반 게시물은 국내, 해외여행이나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멋진 모습(자동차 정비, 커스텀, 손세차, 드라이브)을 통해 “잘 지내는 모습”을 친한 친구 게시물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여행 경비나 자동차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한탄, 본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문제에 대한 자조적 게시물 등 앞서 말한 이분법적 운영을 볼 수 있었다. 어쩌서 면담자들은 같은 인스타그램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다른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는 현 세대의 다중적 페르소나의 연출을 유도하는 문화와 미디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게시물(피드)가 정제된 전시용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스토리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가볍고 솔직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났고 인스타그램의 본 계정이 공식적 페르소나로서 사회적으로 무난하고 모범적인 자아를 보여준다면 부 계정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깊은 취향이나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공개 내에서 격식 있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친한 친구 공개 내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유머러스하고 엽기적인 모습,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여타 다른 SNS와 다르게 기능과 계정을 쪼개어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자아를 파편화하여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연출을 유도하는 문화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면담자들에게게서도 앞서 말한 게시물(피드) vs 스토리 / 친한 친구 공개 vs 전체 공개 내에서 같은 사용자라도 서로 다른 모습이 발생했다. 이런 폐쇄적인 공유(부계정, 친한 친구)와 연출된 앞무대(본계정, 전체 공개)가 공존하면서 면담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공식적이고 사회적으로 무난하고 모범적인 전시적 자아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솔직한 자아의 모습이 공존하게 된다. 이런 앞무대와 뒷무대의 공존에서 면담자들은 앞무대에서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아를 구상하기 위한 부담이 일정 정도 존재한다면 뒷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본인의 사적 감성과 솔직한 모습을

공유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일정 부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 인스타그램 계정 공개 여부와 포스팅 방식에 따른 이용 행태 차이

인스타그램은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넘어, 사용자가 관계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 게시물과 스토리 등의 기능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통 대상과 정보 노출 범위, 콘텐츠의 성격, 상호작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와 자기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질문에서는 계정 설정과 포스팅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이용 행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계정 설정(공개 계정 vs 비공개 계정)에 따른 소통 대상과 정보 노출의 차이

인스타그램의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은 소통 대상과 정보 노출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개 계정은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반면, 비공개 계정은 제한된 인간관계 안에서 보다 편안한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면담자들은 계정의 공개 범위에 따라 게시하는 콘텐츠의 성격과 표현 방식 또한 다르게 조절하였다.

먼저, 공개 계정은 주로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부 면담자들은 공개 게시물에 여행 사진이나 분위기 있는 일상 사진, 취미 활동 등 비교적 긍정적이고 정돈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업로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면담자 F는 본계정에 교회 사람들, 학교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회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우정 사진처럼 모범적이고 바른 모습 중심의 게시물을 올린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공개 계정이 단순한 기록 공간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비공개 계정은 보다 사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공개 게시물 및 스토리에는 올리지 않는 감정 표현이나 현실적인 고민을 비공개 계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었다. 면담자 E는 자동차 사고나 경제적 고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자신의 비공개 계정 친한 친구 스토리에 공유한다고 응답하였고, 비공개 기능이 단순한 게시 공간을 넘어, 감정 표현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계정 자체를 관계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면담자 C는 부계정에서 “정말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들만 남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소통 공간을 세분화하고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개 범위에 대한 부담 역시 나타났다. 일부 면담자들은 외부 계정의 접근이나 스팸 메시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면담자 F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공개 계정은 넓은 소통의 장점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포스팅 종류(게시물 vs 스토리)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콘텐츠 성격의 차이

인스타그램의 대표적인 업로드 기능인 게시물과 스토리는 각자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시물은 사용자가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정에 지속적으로 남는다는 특징 때문에 신중하고 정돈된 콘텐츠 중심으로 업로드되지만, 스토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상을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면담자들은 콘텐츠의 지속성과 공개 범위에 따라 표현 방식과 게시 빈도를 다르게 조절하고 있었다.

우선 게시물은 주로 자신의 취향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여행 사진이나 분위기 있는 일상 사진, 기념하고 싶은 순간 등을 중심으로 게시물을 업로드하였으며 사진의 분위기와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C는 “게시물은 영원히 박제되어도 괜찮은 사진을 올리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엄선된 사진과 긍정적인 분위기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업로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게시물이 단순한 기록 공간을 넘어,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스토리는 보다 즉흥적이고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순간적인 감정, 인터넷 밈, 취미 활동 등을 스토리에 부담 없이 업로드하고 있었으며, 게시물보다 훨씬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나타났다. F는 교회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나 귀찮은 감정을 친한 친구 스토리를 통해 해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면담자 B 역시 인터넷 밈이나 웃긴 상황 등을 친한 친구 스토리에 자주 공유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스토리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감정 표현과 일상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토리의 휘발성은 사용자들의 표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토리는 24시간 이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게시물보다 심리적 부담이 적었으며, 혼잣말이나 순간적인 감정 표현처럼 비교적 가벼운 콘텐츠가 자주 나타났다. C는 “스토리는 여차피 24시간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편하게 올린다”라고 말하며 스토리 기능의 간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면 오래 남기고 싶은 사진이나 기록은 게시물이나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E 역시 자동차 관련 취미나 여행 기록은 하이라이트 기능에 정리해두는 반면, 보험료나 경제적 고민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친한 친구 스토리를 통해서만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용자들이 콘텐츠의 지속성과 공개 범위에 따라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면담자들은 게시물과 스토리를 목적 자체가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게시물은 기록과 이미지 관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고, 스토리는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H는 게시물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정리하는 공간”처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스토리는 보다 가볍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업로드 기능 구조가 사용자들의 자기표현 방식 자체를 세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계정 상태와 포스팅 방식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이용 패턴의 차이

면담자들은 단순히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계정의 성격과 포스팅 방식을 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본계정, 부계정, 친한 친구 기능 등을 함께 사용하며 인간관계의 범위와 표현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를 선택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들은 계정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본계정은 학교, 가족, 지인 등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비교적 정돈된 이미지와 긍정적인 일상 중심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부계정이나 친한 친구 기능은 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사적인 감정이나 현실적인 고민까지 보다 자유롭게 공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계정의 공개 여부와 포스팅 방식이 결합되면서 콘텐츠의 성격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공개 계정의 게시물은 완성도 높은 사진과 긍정적인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비공개 계정이나 친한 친구 스토리에서는 스트레스, 고민, 인터넷 밈, 사적인 대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즉흥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한편 일부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단순 기록 공간을 넘어 공감과 반응을 기대하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친한 친구 스토리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G는 친한 친구 스토리에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감 섞인 반응이나 답장”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다른 응답자의 일부 답변에서는 인스타그램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며, 관계 유지를 위한 수준에서만 활용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사용자마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기능과 계정 구조가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 사용자들의 인간관계 형성과 자기표현 방식을 세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인스타그램 앞·뒷무대 경계의 붕괴와 폐쇄적 소통이 유발하는 역설적 불안

SNS상에서는 비공개 계정이나 친한친구 같은 폐쇄형 방식을 취하더라도 앞무대와 뒷무대가 명확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플랫폼이 안전한 뒷무대를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기술적 착각과 인간관계의 불완전함이라는 장벽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선 심리적 차원에서 폐쇄적인 울타리는 이용자의 민낯을 온전히 드러내는 완벽한 '뒷무대'가 되지 못한다. 소수의 지인 집단만 남겨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한, 그 안에서조차 '보여주고 싶은 사생활'의 수위를 계산하며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면담자 C의 경우, 명확한 관계 구분을 위해 부계정을 운영하며 “정말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들만 남긴다”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관계망을 극도로 축소한 공간 안에서조차 포스팅 방식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연출된 인상자아 관리 의도가 고스란히 작동한다. 면담자 C는 휘발되는 '스토리'와 달리 영구히 기록이 남는 '게시물' 영역에서는 사적 평판을 의식하여 “영원히 박제되어도 괜찮은 사진”, 즉 고도로 엄선된 콘텐츠만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친밀한 사적 영역일지라도 플랫폼의 구조적인 영속성 앞에서는 타인에게 평가받을 '연출된 나'를 연출하려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폐쇄적 공간 내부조차 또 다른 형태의 정교한 앞무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인스타그램 사용을 최소화하는 면담자 D의 소극적 이용 행태 역시 뒷무대의 불완전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면담자 D는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며 게시물 없이 지인들에게 태그된 스토리를 수동적으로 공유하는 수준으로만 플랫폼을 활용했다. 그가 '친한 친구' 기능을 쓰는 목적 또한 정서적 해방이 아닌, 단지

“친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보여주기 곤란하고 불편한 팔로워들을 제외”하기 위한 방어적 차단 막에 불과했다. 더욱이 스토리 공유 동기는 자발적 자기표현이 아니라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타의적 성격”이 지배적이었고, 내밀한 일상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국 면담자 D에게 폐쇄형 SNS는 연출된 자아로부터 해방된 뒷무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계 유리를 위해 방어적으로 자아 노출을 통제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또 다른 인상자아 관리 공간이었던 셈이다. 더 치명적인 반전은 시스템적 보안을 강화하더라도, 결국 이를 소비하는 주체는 통제 불가능한 타인이라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스토리의 휘발성과 수신자 제한을 절대적 방어막으로 신뢰하지만, 이는 기술이 만든 가상의 보호막일 뿐이다. 폐쇄적 SNS기능과 공간 역시 언제든지 타인의 변심에 의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가시성의 공간이며, 기술 뒤에 숨은 인간관계의 가변성 때문에 그 공간은 결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불완전한 뒷무대가 된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면담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면담자 F의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 리스크와 미디어 방어 기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준다. 면담자 F는 2년 전 지역 내 다편이크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 지인마저 실제 피해자가 되자,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로 기존 공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러나 위험을 피해 오직 신뢰하는 소수만 엄선한 친한친구 스토리라는 뒷무대로 대피했음에도 경계의 붕괴는 내부로부터 찾아왔다. 이 안전지대를 믿고 “연애 문제 등 극도로 사적인 감정”을 공유했으나, 내부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곤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유출 리스크는 1차 잠금인 비공개 계정 상태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 계정 자체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그 안에서 한 번 더 수신자를 제한하는 친한친구 스토리를 활용했던 면담자 E 역시 동일한 방식의 정보 유출을 경험했다. 면담자 E는 “자동차 사고나 보험료, 경제적 고민” 등 타인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현실 문제를 공유했으나, 신뢰 관계 내부의 균열로 인해 이 사생활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취약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한친구 공간은 이용자에게 온전한 해방감을 주는 완벽한 뒷무대가 되지 못한다. 내부적으로는 소수 앞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관리하고 연출해야 하는 자아 연출의 피로감이 잔존하며, 외부적으로는 관계 균열 시 견잡을 수 없는 유출과 평판 훼손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디지털 리스크를 피해 도망쳐 온 폐쇄적 공간이자 이중의 보안을 적용한 공간마저 안으로는 또 다른 가면의 피로감을 주고, 밖으로는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은 깊은 회의감을 남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무대의 경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인간관계와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유발하며, 이는 단순한 평판 관리의 피로를 넘어, 사회적 재난의 공포와 완벽한 기술적 차단 속에서도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역설적 불안과 심리적 문제를 남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전체 게시물'과 '친한 친구' 기능의 분화가 이용자들의 자아 연출 방식과 소통 행태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을 의식해야 하는 앞무대에서는 여행이나 정돈된 일상처럼 주로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서 벗어난 심리적 안전지대인 뒷무대에서는 자동차 사고, 경제적 고민, 스트레스나 가벼운 인터넷 밈처럼 가공되지 않은 실제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폐쇄적인 공유 공간은 앞무대에서 나타나는 일방향적인 이미지 전시나 답페이크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방어적 태도와 달리,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쌍방향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듯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 스토리에 가감 없는 자아를 드러냄으로써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주변의 공감 섞인 반응과 위로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해소라는 심리적 효과를 얻고 있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친구 설정 구조는 단순히 노출 범위를 지정하는 기술적 기능을 넘어, 특정 인물을 리스트에 포함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집단 내 소속감과 소통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상징 자본'이자 구별 짓기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인스타그램은 고정된 하나의 자아를 기록하는 곳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계의 맥락과 친밀도에 따라 다중 페르소나를 유연하게 오가며 자신의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는 분절된 자아 연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프먼의 연극적 자아 이론과 부르디외의 구별 짓기 개념을 현대의 휘발성·폐쇄적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여, 디지털 분절을 통한 이중적 자아 연출 과정을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판 관리의 피로감과 디지털 리스크에 직면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포착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 양상과 이용자 행태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6. 참고 문헌

- 최근원, 나은영 (2025).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이 긍정감정과 인터넷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62(1), 65-95.
- 신일순. (2020). 개방형 및 폐쇄형 SNS에서 프라이버시 역설의 차이. 정보화정책, 27(1), 72-91.
- 김하원, 이성식. (2025). 인스타그램 이용동기의 다중계정사용에 대한 심리요인들의 조절효과. 공공정책연구, 42(2), 81-103.
- 우혜진, 박지윤, 탁현아, 이규연, 이지혜, 성용준 (2017). 자존감 불일치와 SNS에서의 과시적 자기표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8(3), 365-389.
- 사카타 리리, 김동윤 (2024).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악성댓글: 한국과 일본 MZ세대 SNS 이용자 간 비교 연구. 일본연구, (84), 171-197.
- 김윤아, 이예진, 이윤슬, 김은실 (2022).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지각된 일시성이 사용자의 자기개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3(3), 257-288.
- 장현미 (2014). 고프먼 관점에 따른 자아의 유형화와 커뮤니케이션적 함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자아에의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0(2), 332-373.
- 김종현 (2014). 자기과시성향이 정보공유행위와 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서울.

유학생 증가 정책의 영향과 인식 연구
: 전북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3조 : 20223426 임형규, 202247096 김연선

1. 서론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지방의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실행되고 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 대학들은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 1기에 선정되었으며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2026년 초, 전북대학교가 생활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참빛관을 외국인 유학생 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국인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유학생 배정 인원이 늘어나자 내국인 학생이 기숙사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총학생회의 강력한 항의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뒤늦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우선 배정 방침을 일부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논란은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숙사 문제를 넘어 수업 환경, 주거 환경, 학생들 간의 관계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책의 구조적인 한계와 개선 방안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했으나 대학 내 학생들 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 증가 정책이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대학 관계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역대학 활성화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선정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4년 기준 약 12만 8천여 명으로 2021년 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언어장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해왔다.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해 학습 성취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한 좌절감이 누적되면서 수업 참여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보고되어 왔다. 또한 유학생들은 같은 국적이나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이른바 '접촉가설'을 주요 이론적 틀

로 활용해왔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우호적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으며,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력적 접촉, 공동의 목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구조화된 접촉 기회 없이 동일 공간에 배치되는 경우, 오히려 자원 경쟁에 대한 인식이나 거리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한편 자원경쟁의 관점에서는 기숙사·일자리·주거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새로운 유입 집단과 기존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도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기숙사 배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대학 주변 임대시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 논의들은 유학생 정책이 캠퍼스 내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학생의 적응 문제, 내국인 학생의 인식, 대학 국제화 과정에서의 갈등, 유학생 정책의 구조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유학생·내국인 학생·교수·지역사회(부동산)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동시에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대학교를 사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유학생 증가 정책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갈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30 사업¹⁾을 중심으로 유학생 증가 정책이 대학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유학생 증가 정책은 대학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가. 위 질문을 통해 대학 측, 재학생 측, 신규 유학생 측의 입장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대학 내 수업 환경 및 거주 환경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해당 질문을 통해 변화된 수업 환경과 거주 환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유학생 증가 정책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과 문제의식은 무엇이 있는가. 이를 통해 학교 내의 갈등 담론을 대학 내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지 소개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위치해 있다. 해당 캠퍼스 부지 내에는 각 단과대 건물, 식당, 생활관 및 편의시설이 있다. 2023년 11월,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유학생 증가 정책은 사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전북대학교는 유학생 5,000명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해외 대학 간 협력 및 국제센터 등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특히 교육 및 주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각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는지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캠퍼스 내 특정 강의실 및 생활관을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인근 원룸 및 빌라는 학생들의 주된 주거 환경 중 하나이며 이를 관리자 개인이 입주를 관리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주로 공인중개소 및 부동산을 통해 관리된다.

1)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지방의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월 글로벌대학³⁰ 정책 관련 이슈²⁾로 인해 인근 원룸 및 빌라의 수요가 증가하여 월세가 상승된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거에 관한 유학생 증가 정책의 영향 및 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소 및 부동산을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대학생 인증을 거친 이용자들이 어플을 통해 학사 일정, 수강 정보, 학교 생활 기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 공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식까지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유학생 증가 정책이 대학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대상은 신규 유학생 2명, 내국인 재학생 3명, 강의 담당 교수, 전북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인으로 총 7명으로 설정했다. 각 집단이 경험한 수업 환경, 주거 환경, 정책 인식 및 갈등 경험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인터뷰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이 유학생 증가 정책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구분	세부 내용	주요 인터뷰 내용
유학생A	중국 출신	언어장벽, 학업적응, 차별 경험
유학생B	베트남 출신	주거문제, 학업적응, 한국인과의 관계
재학생A	문헌정보학과 4학년	정책 인식, 수업 변화, 기숙사 논란
재학생B	정치외교학과 3학년	생활관 갈등, 기숙사 논란, 온라인 여론
재학생C	사학과 4학년	정책 만족도, 수업 변화
교수님	내국인, 유학생 강의 담당	수업 운영, 학습 격차
부동산 중개인	전북대 인근 부동산 종사자	임대시장 변화, 월세 상승

선행연구와 함께 뉴스 기사,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및 홍보 자료를 참고했다. 또한 학생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학생 정책에 대한 불만과 갈등 양상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4. 연구 내용의 분석

1) 유학생 인터뷰

(1) 전북대학교 선택 배경과 정책 인식

중국 출신 유학생A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B는 전북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로 비교적 낮은 학비와 생활비, 학교가 제공하는 유학생 지원제도를 꼽았다. 중국 출신 유학생A는 “중국에서 다니던 학교를 통해 전북대를 알게 되었고,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적다고 들었다. 유학생 지원이 많다고 홍보했었다”라고 답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B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생활비가 비싸 포기하고 장학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전북대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2)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내국인 재학생 모집인원을 줄여 생긴 논란이다.

전북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수업 환경과 도서관 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학습 지원 및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2) 언어 장벽과 학업 및 생활 적응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꼽은 어려움은 언어에 대한 문제였다. 중국 출신 유학생A는 “수업마다 다르지만 한국어가 부족해서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AI나 번역기를 사용하고 가끔은 이해를 포기하게 되는 수업도 있다.”고 답변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B 또한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PPT 자료를 주는 수업이라 다행이고 녹음해서 나중에 다시 듣고 번역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중국 출신 유학생A는 “병원이나 아르바이트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외롭기도 하다”고 답했다. 또한 행정 처리나 서류 처리에 대해서는 학교의 도움보다 같은 나라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학생A는 “중국인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 행정이나 생활 정보는 같은 중국 출신 유학생들에게 물어보며 해결했다”고 답변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B는 기숙사 입주를 기대했으나 탈락하면서 급하게 학교 주변의 원룸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유학생B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가서 그바게 원룸을 구했다. 나쁘지는 않은데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다”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부담도 토로했다.

(3)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 유학생들은 모두 한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하다고 응답했다. 중국 출신 유학생A는 “한국 학생들은 친절했다. 천천히 설명해주는 학생들에게 고맙웠다”고 답했고 베트남 출신 유학생B 또한 “친해진 친구들은 잘 챙겨줬다”고 답변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B는 “처음에 먼저 말 거는 것이 어색했지만 조별과제를 하며 친해졌다”고 답변하며 수업 내 조별과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깊은 관계 형성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중국 출신 유학생A는 “한국 학생들과 깊게 친해지지는 않고 유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또한 조별 과제를 할 때 “한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수업 내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거리감의 원인에 대해서 중국 출신 유학생A는 “언어나 문화 때문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친해져있어 외국인이 끼어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직접적인 차별 경험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유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국 출신 유학생A는 “직접적으로 심한 차별을 당한 적은 없지만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적은 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을 싫어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B 또한 “인터넷에서 유학생 때문에 내국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고 답변했다.

2) 재학생 인터뷰

(1) 유학생 증가 정책에 대한 인식

재학생 A, B, C는 모두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유학생 증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재학생 A는 “올해 기숙사 논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에브리타임에서 관련 글을 많이 봤다”고 응답했으며 재학생 C는 학교의 홍보자료와 AI 스페이스 등을 통해 사업을 인식했다고 답했다. 재학생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지만 학교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은 유학생 확대 정책을 반대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학생 A는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2) 수업 환경의 변화

유학생 증가 이후 수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재학생 A는 “발표 자료를 번역해 따로 올리라고 한 적이 있었고 수업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응답했다. 재학생 C 또한 “교수님이 영어로 다시 설명하거나 발표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별 과제 경험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재학생 A는 “소통이 어려워 결국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변했으며 재학생 C는 연락 문제와 역할 분배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재학생 B는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3) 기숙사 문제와 학교의 대응

재학생들은 학교가 유학생 증가 정책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학생 A는 “유학생을 급하게 받은 느낌이 들고 기존 재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재학생 C역시 “유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관리나 대책이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숙사 문제는 재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피해 사례였다. 생활관에 거주중인 재학생 B는 생활관 입주 합격에 어려움을 겪었고 만족도에 매우 악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또한 생활 방식과 문화차이로 인해 식당이나 공용 공간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4) 거리감과 갈등의 원인

재학생들 모두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학생 A는 “실제로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고 서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답했고 재학생 B는 생활관에서의 생활 방식과 문화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학생 C 역시 언어 문제와 함께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갈등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3) 교수님 인터뷰 : 수업 현장의 변화

(1) 수업 내 유학생 현황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님의 강의에는 총 36명 중 6명(약 15.8%)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강하고 있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목의 특성과 학사 체계에 따라 과목별 편차가 크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사 체계에 맞추어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 수업 운영과 학습 격차

교수님은 유학생 증가 이후 수업 진행 방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와 함께 내국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교수님은 “절대적인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와 수업 참여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한국어 실력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3) 유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한 평가

교수님은 유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 태도와 학업 수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분은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업 참여나 과제 수행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려는 노력 없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소수 있다”고 설명했다.

4) 부동산 인터뷰 : 임대 시장의 변화

(1) 주거 수요의 변화

전북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인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이후 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주로 1월 초부터 방을 구하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12월부터 주거를 알아보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기숙사 논란 당시에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중개인은 “내국인 학생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면서 하루에 전화가 수십 통씩 왔다”며 “그 정도 물량은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의 기숙사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2월에 한꺼번에 원룸 시장으로 몰렸고 그 시점에는 이미 양질의 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증가와 기숙사 논란으로 인해 한교 주변 주거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의 주거 경쟁이 심화된 것이다.

(2) 월세 상승 현황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의 보증금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숙사 논란이 발생했던 2026년 초에는 단기간에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중개인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집주인들이 즉각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답변했다.

2022년만해도 구축 원룸은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5~18만원이면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수준의 방도 월세 23~28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신축이나 풀옵션 원룸의 경우에는 월세가 35~45만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보증금 역시 100~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3) 외국인 임차인의 증가와 계약 구조의 변화

유학생 증가 역시 지역 임대 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인은 “글로벌 선정 전에는 외국인 학생 상담이 한 달에 서너 건 정도였지만, 지금은 체감상 20~20% 정도가 외국인 관련 문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중국 학생 중심이었던 유학생들의 국가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었다고 답변했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인은 “유학생들은 보증금을 크게 잡지 않는 대신 월세 몇 달치를 한꺼번에 선불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외국인 임차인을 기피하던 집주인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제와 계약서 이해 부족,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개인은 번역 앱을 활용해 계약 내용을 설명하거나 외국인 임차인 계약 경험이 많은 집 주인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유학생 목표가 5000명이라는데 그게 현실화되면 주변 원룸 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5)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분석

(1) 혐오 표현과 불만 글의 양상

에브리타임 등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혐오성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었다. 도촬 의혹, 시험 부정행위 주장, 기숙사에서의 소음, 식당에서의 소란 등이 주요 불만 내용이 었다. 일부 게시글들은 특정 국정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

(2) 온라인 반응과 현실과의 차이

재학생 인터뷰에서 온라인 반응이 실제보다 과격하게 표현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재학생 A는 “SNS에서 과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허위 사실이나 불편함을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학생 B는 “온라인에서 더 과격한 것은 맞지만 현실에서도 불만은 꽤 있다. 그냥 직접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3) 호의적 반응

혐오 표현과 대비되는 호의적인 반응도 일부 존재했다. “외국인 혐오하기 싫는데”라며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번역기를 통한 소통을 제안하는 댓글,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 등이 있었다.

6) 갈등 양상

인터뷰 결과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련한 전북대학교 내의 갈등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갈등 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거리감 및 갈등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만이 확인되었다. 재학생들은 유학생 증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문제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고 인식했다. 특히 기숙사 논란 이후 학교가 학생들의 불만에 뒤늦게 대응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재학생과 유학생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갈등보다 거리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양 집단 모두 언어와 문화의 차이, 부족한 교류의 기회를 거리감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했으며 서로 각각의 집단들끼리만 교류하는 경향이 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불편함과 심리적인 거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이후 전북대학교에서 나타난 유학생 증가 정책의 영향이 인

I. 서론

최근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사교육과 온라인 학습 환경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 방식과 학습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Jung et al., 2022). 그러나 집중력 저하, 오락영상 시청, AI 의존 문제 등 새로운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중·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이 어떠한 교육적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용도와 비활용 또는 제한 영역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맥락을 비교하여 학교급에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갖는 교육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및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학교 현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선행연구 검토

윤혜원(2025)은 서울학생종단연구 2 차년도 중학생 데이터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이 학생의 기기 의존도를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인터넷 검색과 학습 목적의 기기 활용 빈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기기 사용의 양 자체보다 사용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학생의 ICT 흥미와 자기조절 학습전략 같은 개인 요인이 활용의 질을 좌우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디지털 기기의 도입이 곧바로 과의존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 수업이 학생의 디지털 활용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진솔(2017)은 대구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태블릿 PC 기반 디지털 활용 수업과 전통적 수업의 학습효과를 비교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더불어 수업관찰 및 교사·학생 심층면담을 병행한 결과, 디지털 활용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만족도, 몰입도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 또한 함께 드러났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의 효과가 기기의 보급 자체보다 교사의 활용 역량과 수업 설계 방식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곽내영(2025)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 두 집단 모두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소통·협업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 요구가 증가하였고, 디지털 기기의 오남용과 자기조절 능력 부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디지털 기기가 오늘날 학습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떤 효과와 우려를 동반하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는 집중력 저하나 과의존과 같은 부정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활용 교육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학교 교육 안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성패가 기기의 보급 정도보다 교사의 활용 역량, 학생의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사용의 목적에 달려 있다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모인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학업성취나 학습만족도, 디지털 역량 등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주로 관심을 두었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수업 외의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이러한 사용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학교급(주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 즉 학교급에 따른 활용 양상의 차이와 그 안에서 형성되는 교사·학생 인식의 분기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도 선행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윤혜원(2025)은 대규모 패널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에, 곽내영(2025)은 요구 조사에 의존하였으며, 박진솔(2017)은 혼합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효과를 비교하는 설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실제 학교 현장의 사용 양상에 주목하여, 중·고등학생과 전직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면담(질적)과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양적)을 병행하였다. 특히 학생이자 예비 교사라는 중간 위치에 있는 사범대생의 시각을 더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업 시간에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와 수업 중 비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활용 양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론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교내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제 중·고등학생 4인과 전직 고등학교 교사 3인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와 활용 방식, 학교 지급 기기와 개인 기기의 사용 여부, 수업 및 자율학습 시간에서의 활용 양상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 AI 활용 등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활용 사례와 더불어 게임 혹은 유튜브 시청과 같은 수업 중 비학습 활동, 집중력 저하, 문해력 저하 우려, AI 사용의 공정성 문제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집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 사용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친구 관계, 학교생활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효과 및 한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범대생의 경우 교생실습 내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경험을 파악한 뒤, 교생실습 시 활용 방식 등을 5점 척도 및 서술형 문항으로 수집하였다.

2) 연구 인터뷰 대상

구분	인터뷰 대상	소속 및 배경	주요 특징
교사 A	23년 차 영어 교사	외국어 고등학교 재직	PDF 자료와 전자 기기를 활용해 수업 진행.
교사 B	전직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근무 (2024.3~2025.2)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 등을 언급.
교사 C	사서교사	중학교 근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관찰.
학생 A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안산 소재 고등학교	학교 지급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
학생 B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주 소재 고등학교	수행평가 등의 활동에 디지털 기기 활용 경험.
학생 C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주 소재 중학교	학교 지급 노트북 사용 경험.
학생 D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주 소재 고등학교	태블릿과 PDF 기반 학습 경험 보유.

1)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와 방식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는 일상화 되어있지만, 수업의 중심은 여전히 종이 기반 등 아날로그 방식과 혼합된 상태에 가깝다고 보고된다. 사서교사 A와 전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의 증언을 보면, 디지털 전환은 과목 및 상황별로 다르게 스며든 혼합형 사용 양상을 보인다.

교사 A는 수업과 과제에서 “직접 적고 정리하면서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며 종이 유인물 중심 수업을 유지한다. 디지털 기기는 “노트북 충전, 와이파이 등 신경 쓸 것이 많아 수업 시간이 지체된다”고 보고되었고, 참고 자료가 필요할 때에만 PDF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반면 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 A의 진술에서는 노트북 1인 1대 지급, 수행평가의 거의 전 과목 디지털화, 문제집 및 교재의 PDF 전환 등 보다 강한 디지털 의존성이 드러난다. 정보 과목은 노트북이 필수이고, 수행평가는 거의 전 과목 노트북 활용이 기본이며, 학원 숙제나 인강 수강 및 수학 문제집 풀이까지 태블릿이나 노트북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3-1)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는 이미 상당 부분 일상화되어 있으나, 활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업

보조, 자료 공유, 과제 제출 등 행정 및 지원 기능에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 전원은 PDF 자료, 수행평가 안내, 활동지, 공지사항 등을 메신저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있었다. 공지사항은 PDF 스캔본을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고,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이 문서를 병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수행평가의 경우, 보고서나 산출물을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디지털 기기가 교실 내 행정 효율성과 자료 배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를 주로 판서 대체, 자료 제시, 행정 처리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뷰에서 교사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교과 내용을 크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수업 자료 정리 및 활동지 배포를 간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기가 전통적 칠판이나 유인물 중심 수업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행평가의 경우, 보고서나 산출물을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디지털 기기가 교실 내 행정 효율성과 자료 배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한다. 학생 A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문제 풀이 중심 과목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는 반면, 사회나 과학에서는 여전히 종이 자료 의존도가 높고, PDF 만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토론, 학생 참여형 수업, 온라인 협업 활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조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도 중심, 시험 대비 중심의 수업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고, 질문도 수업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받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디지털 기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수업 구조는 여전히 교사 중심 전달 모델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주로 복습, PDF 열람, 과제 제출, 자료 검색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뷰에서 학생은 디지털 교재를 PDF에 가까운 형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필기나 수정이 빠르다는 점 때문에 반복 복습에 유리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문제집 학습은 1·2회독을 종이 기반으로 수행한 뒤, 이후 반복 회독 단계에서 PDF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기기가 종이 학습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후속 반복 학습과 정리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검색 측면에서 학생들은 포털 검색과 함께 생성형 AI를 “자료 찾기 및 정리용”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무비판적 활용만 아니라면 일정 부분 AI 사용을 묵인하는 분위기를 보였고, 공식적으로는 감점 및 0점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학습 지원 도구이면서 동시에 주의 분산과 학업 윤리 문제를 동반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점과 연결된다(Rana, 2020).

본 인터뷰 대상 학생은 학습과 비학습 목적을 혼합하는 경향을 보여, 실제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가 도움이 되는 학습 도구이자 항상적인 판짓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2) 수업 중 판짓과 디지털 산만함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A를 제외하고, 인터뷰 모두 공통적으로 수업 중 디지털 판짓의 일상화를 지적한다. 교사 C는 “어딜 가나 한두 명은 노트북을 열어놓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음악 감상을 하고 있다”라며 수업 전에 미리 주의를 주고, 조용히 웃거나

몰입한 학생 뒤로 가서 확인해 보면 높은 비율로 판짓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사 B 역시 학생들이 과제를 빠르게 제출한 뒤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으로 넘어가거나, 차단 프로그램을 우회해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환경 자체를 학교 안에 들여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자주 논의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학생 C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디지털 산만함이 이미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수업 중 디지털 기기로 “매우 자주 판짓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선생님들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A는 수업 교과서 자체는 여전히 종이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패드로 교과서를 볼 때는 “노는 느낌이 들어요”,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였고,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도 “속도가 매우 느려 얼마 안 가 중단되었다”라며 회상하였다.

반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종이 매체 선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필기, 지필 시험, 심화 독서, 수능 대비 문제풀이 등 고부담 학습 영역에서는 종이 교과서와 문제집이 중심 매체로 남아 있다. 학생은 전자책(e-book) 활용 빈도가 낮으며, 독서와 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종이 기반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기가 고도의 집중력과 심층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에서는 아직 종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학습 몰입과 언어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도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학생은 수업 집중력이 이전보다 떨어진다고 느끼며, 구어체 중심 표현 습관과 공식적 어휘 사용 능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 성취, 특히 수학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동시에 디지털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성취는 더욱 낮게 나타나는 이중적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디지털 기기 사용은 사용 여부보다 사용의 질과 목적에 따라 다른 교육적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사범대생의 연구 결과 또한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업 중 집중력 저하와 문해력 약화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인식하였으며, 완전한 디지털 전환보다는 종이 교재와 디지털 기기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가 교육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 역량과 적절한 사용 규범, 학습 목적 중심의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디지털 산만함을 줄이기 위한 수업 규율 과 기술적 통제도 관찰된다. 학생 B의 학교는 교사 노트북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학생 화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조작하고, 노트북 판짓 시 수행평가 감점, 휴대폰 수거 정책 등을 도입했다. 한편,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교사는 수업과 무관한 사이트 이용 시 다음부터 활동을 중단하는 것 등을 경고하는 교사 재량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1) 중·고등학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양상의 차이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목적과 활용 방식, 통제 문화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교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통제 속에서 디지털 기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고등학교는 입시 중심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기가 학습 효율성과 직접 연결되며 개인화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먼저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비교적 보조적 수업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학교에 근무 중인 사서교사인 교사 C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교사의 지시와 생활지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습

목적과 오락 목적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에 게임이나 영상 시청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을 자주 관찰했다고 언급하였다.

중학교 1학년인 학생 C 역시 학교 지급 노트북 사용 경험에 대해 “학교에서 주는 노트북은 수업 자료 확인이나 과제 제출 용도로 많이 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수업 중에는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고 말하며, 중학교에서는 교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비교적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 C는 “중학교에서는 아직 부모님이나 선생님 눈치를 많이 보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생활지도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보다 적극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생 A는 학교 지급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수업 자료를 PDF로 보거나 수행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태블릿 들고 다니는 학생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사실상 학습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전주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 역시 수행평가와 온라인 제출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학생 B는 “수행평가는 대부분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으며, 교사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과제를 공지하거나 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 D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 D는 “고3이라 교과서보다 수능특강 PDF 위주로 수업한다”고 설명했으며, “문제집은 종이로 2회독 후 PDF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사 측 인터뷰에서도 중·고등학교 차이는 확인되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는 PDF 자료와 전자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화면을 통해 자료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교사 B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가 “수업 보조 도구이면서 동시에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감점, 화면 감시 프로그램, 휴대폰 수거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기기가 입시와 성적 관리 체계 속에서 더욱 강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인식 역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인 학생 C는 디지털 기기를 “과제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고등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의 장점과 피로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학생 D는 “편하긴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라고 설명했으며, “문해력이 저하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디지털 환경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종합하면,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교사의 생활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중심 구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인화된 학습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 산만함, 집중력 저하, 통제 문제 역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III. 결론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 검색, PDF 활용, 과제 제출, 공지 전달, AI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종이 채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디지털 기기가 수업의 중심 매체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나아가 학습 자료 접근이 용이해지고,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 부담이 감소시키는 것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탄압이 증가하여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났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개별화 학습과 수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고 지원 체계 미흡, 업무 증가, 평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도입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중·고등학교는 학교 지급 기기와 규제 중심 구조 속에서 공정성과 관리가 쟁점이며, 대학생은 개인 기기 기반의 자율 구조 속에서 자기조절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설계할 때 학교급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학업 성취와 학습 기술 향상, 포용 교육으로 세 가지 축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이다. 한계로는 인터뷰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일반화에 제약이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장기적 효과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와 질적 조사와 혼합 방법 연구를 통해, 디지털 기기 학습자와 교사의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의 교육적 의의는 학습 기회 확대와 포용성 강화 등의 가능성에 있으며, 동시에 산만함, 공정성 등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이 아닌 학습자와 교사 중심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한국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곽내영. (2025).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방향성에 대한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진솔. (2017). 중등학교에서 태블릿 PC 기반 디지털 활용 수업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만족도, 인지된 상호작용, 몰입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윤혜원. (2025).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과 중학생의 일상적 디지털 기기 활용의 관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42(2), 359-380.
- Hains-Wesson, R., Wakeling, L., & Aldred, P. (2021). Using digital devices in classroom learning: A complexity theory perspective. Wellington. <https://doi.org/10.26686/wgtn.17151743>
- Jung, J.-H., Bang, G. H., & Kim, Y. C. (2022). *Posthuman learning culture and internet-based private tutoring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online*

instruction in public schooling. Sustainability, 14(21), 14566.
<https://doi.org/10.3390/su142114566>

숯폼 및 알고리즘이 초단기 유행에 미치는 영향
- 전주 지역 카페 소비 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

5조: 서예은 송채현 양민영

1. 서론(연구 주제, 연구 목표)

오늘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숏츠 등 숯폼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공유의 매개를 넘어 특정 상품과 공간에 대한 집단적 욕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내장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특정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수개월에 걸쳐 형성되던 유행을 수주 단위의 초단기 사이클로 압축시키고 있다. 이처럼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유행은 소비자의 방문 결정, 메뉴 선택, 나아가 카페라는 공간이 갖는 문화적 의미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전주 지역 카페 소비문화를 연구지로 삼아 숯폼 알고리즘이 초단기 유행을 발생시키고 확산 및 소멸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집단 소비 쏠림, 품귀 및 시장 변동으로 이어지는 인과 구조를 소비자와 공급자가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알고리즘 유행에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첫째,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다. 이금노(2018)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추천 결과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 연구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상품·공간을 선택적으로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는 카페 소비 맥락에서 특정 가게나 메뉴가 실질적 품질보다 알고리즘 노출 빈도에 의해 '유행'으로 구성되는 메커니즘과 직결된다.

박혜원·이경미는 AI 추천 알고리즘 시대에 소비자가 이른바 '우물 안 개구리' 상태에 놓이게 됨을 논증한다.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관심사를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으로써,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에 노출되는 듯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알고리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택하는 제한된 소비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는 알고리즘 추천이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낮춰주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 선택의 다양성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준거로 기능한다.

둘째, 알고리즘 과잉 노출과 중독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다. 반진욱·김연수(2025)는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주의를 끊임없이 포획하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하나의 중독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도하며, '알고리즘 디톡스'라는 이용자 대응 운동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유행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포착한다. 이 연구는 알고리즘 과다 노출이 개인의 선택 피로와 정보 과부하를 누적시키고, 중국에는 알고리즘 기반 홍보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구조적 불신을 심화시킴을 지적한다. 이는 본 연구의 면담 결과에서 확인되는 "SNS에 자주 보이는 곳은 오히려 안 가게 된다"는 소비자 진술과 직접 연결되는 현상적 맥락을 제공한다.

셋째, 디저트 유행의 초단기 생애주기에 관한 연구다. 홍유정(2023)은 탕후루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었다가 겨울을 전후로 급속히 식어버린 사례를 분석하며, 유행 디저트의 생애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탕후루 열풍의 소멸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SNS 알고리즘이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구조 속에서 기존 유행이 급속히 '구식'으로 소비되는 플랫폼의 작동 논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동현(2026)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두바이 초콜릿·두바이 쫄면·두바이 쫄면 등 최근 K-디저트 유행이 "먹고, 찍고, 끝"이라는 극단적으로 압축된 소비 공식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그는 유행 디저트의 초단기 생애주기가 플랫폼 알고리즘의 콘텐츠 소비 가속화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로 인해 디저트 관련 소상공인들이 유행의 파고를 따라 창업했다가 유행 소멸과 함께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선택을 편익화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유행을 생성하는 동시에 가속 소멸시키는 이중적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플랫폼 수준의 거시적 분석이나 특정 유행 사례의 기술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알고리즘 유행을 일상의 소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며 대응하는지에 관한 질적·미시적 분석은 상대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전주 지역 카페를 연구지로 삼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3. 연구 방법(연구 질문, 연구지 소개, 방법론)

1)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전주 지역 카페 소비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했다.

① 전주 지역 20대 대학생은 카페 및 음식 선택 시 SNS 정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참고하는가

②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방문 및 소비 결정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

③ 이러한 소비 집중이 실제 카페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고객층·메뉴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세 질문은 소비자 행동이 플랫폼 영향력으로, 나아가 시장 구조 한 부분의 변화로 이어지는 분석의 흐름을 구성한다. 첫 번째 질문은 소비자 개인의 정보 탐색 실천에, 두 번째 질문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실제 소비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에, 세 번째 질문은 그러한 소비 실천의 집합적인 효과가 지역 카페 시장의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2) 연구지 소개

본 연구의 연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층위로 구성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연구지로 설정한 것은, 현대의 소비 공간이 물리적 장소와 디지털 플랫폼이 중첩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카페라는 공간은 단순히 음료를 소비하는 물리적 장소에 그치지 않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지화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재구성되는 플랫폼적 공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 두 층위를 함께 관찰함으로써 알고리즘이 공간의 의미와 소비 실천에 개입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① 온라인: 인스타그램(전주에서 뭐하지?, the jeonju, 진원 등 로컬 콘텐츠 계정)

② 오프라인: 전주에 위치한 카페 2~3곳

온라인 연구지는 SNS인 인스타그램이다. ‘전주카페’, ‘객리단길카페’ 등 전주 지역 카페 관련 해시태그 및 ‘전주에서 뭐하지?’, ‘the jeonju’, ‘진원’ 등 전주 로컬 콘텐츠 계정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의 생성·확산 양상을 관찰했다. 해당 계정들은 전주 지역 내 카페, 맛집 정보를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알고리즘이 지역 소비 유행을 어떻게 형성하고 증폭시키는지 관찰하기에 적합한 연구지로 판단했다. 연구 전용 계정을 개설하여 특정 유행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오프라인 연구지는 전주에 위치한 카페 2곳이다. 연구지 A는 2025년 5월에 개업한 신생 카페로, 인스타그램 홍보를 주된 마케팅 수단으로 채택하고 적극 활용하며 두바이 쏘독쿠키·버터떡 등 유행 디저트를 시의성 있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지 B는 13년 이상의 운영 이력을 가진 장기 운영 카페로 동네 주민과 단골 고객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SNS 홍보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유행 디저트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중심 소비문화에 포섭되지 않는 대안적 운영 방식의 사례로서 연구지 A와의 비교 분석의 유의미한 대상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두 연구지는 SNS 활용 여부와 운영 전략이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비교 분석에 적합한 사례라 생각돼 선정했다. 두 연구지의 대비는 알고리즘 기반 소비문화가 카페 공간의 성격과 운영 전략을 어떻게 분화시키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비교 축을 이룬다.

3) 방법론

본 연구는 온라인 참여관찰과 오프라인 심층 면담을 병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현장연구에서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의 맥락 속에 직접 위치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실천을 내부적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방법론적 태도를 함축한다. 카페라는 공간은 물리적 장소인 동시에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디지털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층위에서의 참여관찰은 공간의 인류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접근으로 판단했다. 카페라는 장소가 알고리즘을 통해 어떻게 재의미화되고 소비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공간과 실천의 관계를 다루는 인류학적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온라인 참여관찰은 인스타그램 전용 계정을 통해 전주 카페 관련 해시태그와 로컬 계정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의 유형, 반응, 확산 패턴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게시물(릴스, 사진, 스토리 등)이 알고리즘에 의해 확산되는지, 유행 디저트 관련 게시물의 주기는 어떠한지를 관찰하고자 했다. 연구 전용 계정을 활용한 방식은 연구자 개인의 기존 알고리즘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관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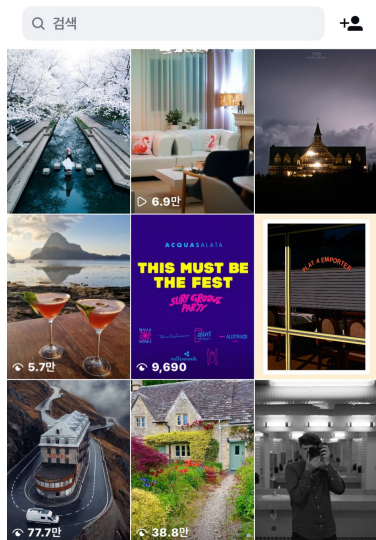


그림 3 계정 생성 직후 알고리즘 추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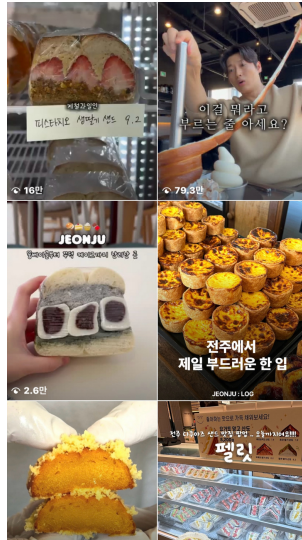


그림 4 알고리즘 생성 이후 화면

참여관찰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한 이후, #전주맛집, #전주디저트, #전주카페 등의 해시태그를 지속적으로 검색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전주 로컬 콘텐츠 계정을 구독한 당일부터 알고리즘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기본 상태의 추천에서 오직 전주 지역의 카페와 디저트 중심으로 게시물이 노출되었다. 이는 신규 계정 생성 이전에도 연구자들이 경험해본 것으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특정 소비 공간을 선별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카페 선택 행위를 구조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취향에 따른 자율적 소비'처럼 보이는 행위가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노출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심층 면담은 소비자와 공급자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급자 면담은 앞서 소개한 카페 A와 B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질문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카페 운영 현황, SNS 활용 방식, 유행 디저트 전략, 소비 문화 변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소비자 면담은 전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SNS 정보 탐색 패턴, 방문 결정 과정, 실제 방문 경험, 유행 소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소비자와 공급자를 구분하여 면담을 진행한 것은 동일한 소비 문화 현상을 수용하는 측, 생산하는 측 각각의 경험과 인식을 대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면담 참여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다.

4. 연구 내용의 분석

1) 전주 지역 20대 대학생

소비자 면담을 통해 우리는 슷품 및 알고리즘과 카페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하여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해시태그 검색 또는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병행 활용하고 별점과 후기를 참고하는 능동적 검색형이다. 둘째,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피드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시 활용하는 피드 수용형이다. 셋째, 지인 추천이나 주변 상권 내 카페를 위주로 방문하는 오프라인 의존형이다.

소비 방식에 따라 위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알고리즘의 영향은 특정 목적 상황에서 증폭되며 일상적 카페 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가명	카페 이용 빈도	주요 SNS	특징
도훈	주 2회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톡	비판적 소비 성향
한진	이틀에 1회	인스타, 틱톡, 카카오톡	유행 수용적, 스트레스 해소형
지훈	주 4회	인스타, 틱톡, X	분위기·가격 중시, 동조 소비 성향
영재	주 4회	인스타 (일 4시간)	인테리어·분위기 중시
정환	주 4회	인스타, 카카오톡 (일 10시간)	광고 민감, 실사용 후기 중시

표 7 면담자 기본 정보

면담을 통해 개인마다 온라인에서의 모습과 오프라인에서 실제 겪었던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은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고, 유행하니까 소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변의 반복적인 언급이 소비로 이어졌으며, "먹다 보니 맛있나 싶어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취향보다 유행이 소비를 선행했다.

반면 도훈은 "유행을 굳이 따라가지 않는 편"이라며, 유행 상품의 가격 프리미엄을 인식하고 "유행이 식은 다음에 궁금한 건 소비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SNS 홍보보다 "지인이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을 신뢰한다고 했으며, 한편으로는 "홍보를 보면 요즘 유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실용적 수용도 나타났다.

이처럼 알고리즘과 SNS 홍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균질하지 않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비판적 거리를 두는 소비자조차 플랫폼이 형성한 유행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비를 조율한다는 것이다. 즉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직접적 수용뿐 아니라 의식적 거부의 형태로도 받아들여진다.

유형	해당자	핵심 논리
비판적 지연 소비형	도훈	유행 절정 이후 가격 안정 시점에 소비, 동조 압력에 의한 소비를 의식적으로 경계
선택적 유행 수용형	한진	유행 중 자신의 취향과 부합하는 항목만 선택적으로 소비, 유행을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수용
동조적 유행 추종형	지훈	‘지금 유행이라는 것’ 자체를 소비 이유로 내면화, 자신의 취향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동조 압력에 의해 소비에 참여

표 8 주요 면담자 특징

특히 면담 과정에서 도훈은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는 이유로 개인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알고리즘 유행이 소비 주체성을 잠식하는 과정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가 알고리즘의 영향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때로는 그 구조 안에 속해있는 모순적 주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카페 방문 후 SNS상에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올리는 행위에서도 소비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면담 참여자의 대부분은 카페 방문을 기록하는 주된 이유로 자랑과 과시를 언급하였으며 이는 카페 소비 문화가 음료와 디저트의 물질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한 자기 표현과 사회적 인정 추구라는 상징적 소비의 차원을 내포함을 보여준다.

2) 전주 지역 카페 운영자

카페 A의 경우 인스타그램 홍보를 주된 마케팅 수단으로 채택하고 두바이 쏘독쿠키, 버터떡 등 유행 디저트를 유행 주기에 맞추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SNS에서 유행하는 밈과 키워드를 메뉴 이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알고리즘 친화적 콘텐츠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운영자 스스로 말했듯 SNS 홍보는 주 고객층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운영자는 "SNS로 오는 손님들은 이벤트 끝나면 안 와요."라고 언급한 바 있듯, SNS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학생 층이 유입되었으나 이들은 이벤트 목적의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경향이 컸으며 이벤트 종료 후 일부가 재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골 고객으로의 전환율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소비가 이벤트와 유행이라는 외적 자극에 종속된 한시적 소비임을 보여준다.

유행 디저트의 인기가 식어갈 경우의 대응 전략으로 운영자는 생산량을 줄이고 유행 디저트를 변형한 시그니처를 만들어 카페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초단기 유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행을 촉매로 삼아 자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적응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약 13년간 카페를 운영한 B는 SNS 홍보를 거의 활용하지 않음에도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안정적 고객 유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운영자는 주변 유행에 다른 카페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유행 디저트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토로하면서도 ‘유행이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가게 디저트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13년간의 장기 운영 경험에서 축적된 시장에 대한 장기적 관찰에 근거한 판단이며 동시에 초단기 유행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현장의 비판이기도 하다.

또한 “젊은 층에게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긴 대기를 감수해서라도 트렌드를 경험하고 SNS에 자랑하는 문화 같습니다. 카페의 고요함이나 사람 간의 대화 같은 것이 핫플·사진 촬영용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알고리즘 기반의 소비 문화는 카페 공간의 의미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카페는 더 이상 휴식과 대화의 장소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생산하고 소비자가 재생산하는 시각적 콘텐츠의 무대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원래 전주는 객리단길·한옥마을 같은 중심지가 절대적이었는데, 요즘은 SNS 하

나로 외곽 주거지까지 손님이 찾아옵니다. 상권의 호흡이 너무 급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말은 알고리즘이 단순한 소비 유도를 넘어, 기존 전주라는 공간의 공간적 위계질서마저 해체하고 재편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통적인 상권의 입지, 유동인구, 오프라인 사회자본이 알고리즘의 노출 논리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알고리즘과 플랫폼 앞에서 무력화 되어가는 현상의 진술로 보인다.

질문	카페 A	카페 B
알고리즘 노출 이후 고객 변화 체감	"주 고객층이 크게 변하는 등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카페는 단골 고객과 동네 주민이 주 고객층이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SNS 유입 고객과 단골 고객의 차이	SNS 이벤트를 통해 학생층 일시 유입 → 메뉴 하나 구매 후 이벤트 물품만 수령하는 일회성 고객 패턴	단골 고객은 편안한 분위기와 메뉴 맛에 만족하여 지속 재방문/ 멀리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재방문함

표 9 SNS 노출과 소비자 유입

5. 결론 및 연구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전주 지역 카페 운영자와 20대 대학생 소비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숏폼 알고리즘이 초단기 유행을 매개하는 구체적 양상과 그에 대한 공급자·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했다.

첫째, 알고리즘의 영향력은 소비자 전반에 균질하게 관철되지 않는다. 면담 결과, 소비자들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각자의 미디어 이용 방식과 소비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 검색, 피드 수용, 비판적 거부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알고리즘의 효과는 일상적인 카페 이용보다 특별한 날이나 낮선 지역 방문과 같은 비일상적 맥락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활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알고리즘이 생성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의 낙차가 소비자의 구조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면담 참여자 전원에게서 SNS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기대와 실제 방문 경험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시그니처 디저트의 맛과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실망,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미관상 차이, 유행 메뉴의 품질로 인한 허탕 경험 등은 모두 SNS 콘텐츠의 연출과 알고리즘에 의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소비자들은 SNS 홍보 전반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되며, 종국에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주 노출되는 카페나 콘텐츠를 기피하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셋째, 공급자의 알고리즘 유행 대응 전략은 단기적 유입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카페 A는 유행 디저트 도입과 SNS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 고객 유입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벤트 종료 후 단골 고객으로의 전환에는 한계를 보였다. 유입된 소비자들이 이벤트를 위해 방문하는 등의 일회성 방문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카페 B는 SNS 홍보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반상화·지인 구전 등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안정적 고객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카페 B의 운영자가 '유행이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봐왔다'고 진술한 것은 개인적 소신의 표현인 동시에, 초단기 유행 의존 전략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 증언이기도 하다. 두 사례의 대비는 알고리즘 유행을 전면 수용하는 전략이 단기적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카페 운영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카페라는 공간은 소비와 퍼포먼스가 중첩되는 복합적 문화 장소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 주체성의 문제가 부각된다. 카페 B 운영자의 말처럼, 오늘날 카페는 음료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트렌드를 체험하고 이를 SNS에 전시하는 퍼포먼스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카페 방문의 이유로 '자랑'과 '과시'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음식보다 시각적 연출이 우선시되는 디저트가 확산되는 현상은 이 재편의 구체적 징후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의 취향과 무관하게 유행을 소비하는 동조적 추종이 심화되는 한편,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메타적 성찰 또한 병존하는 모순적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초단기 유행은 소비자를 주체적 취향의 형성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설계한 유행 사이클의 일시적 참여자로 위치시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대항적 소비 실천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카페 소비를 향한 집단적 욕망을 생성하고 증폭시키지만 그 효과는 균질하지 않다.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알고리즘의 영향은 능동적 검색, 피드 수용, 혹은 비판적 거부의 형태로 굴절된다. 공급자 역시 알고리즘 유행을 전면 수용하거나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분화되며 전자가 일시적 유입 증가를 경험하는 반면 후자는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유행 마케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카페라는 공간은 점차 퍼포먼스적 소비의 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간 인식의 낙차가 심화되고 소비자의 SNS 홍보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는 역설적 상황이 형성된다.

6. 참고문헌

-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8-17], 2018
- 박혜원, 이경미, AI추천 알고리즘 시대의 우물 안 소비자 - 제한된 소비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4.08
- 반진욱, 김연수, [관심 끄는 알고리즘 중독 해결책] 디톡스까지 '유행'... 과다 알고리즘 공화국, 매경ECONOMY 통권 제 2294호, 2025.1
- 조동현, [짧아진 디저트 유행의 냉혹한 공식] 먹고 찍고 끝...K디저트 '초단기 생애', 매경ECONOMY 통권 제2356호, 2026.4
- 홍유정, [Focus1] 겨울 찬바람과 함께 식어버린 탕후루 열풍, 월간 커피 Vol.264, 2023.12